

‘2연패 본격 시동’ 프로야구 KIA 이범호 감독 “지난해 퍼포먼스 또 보여주겠다”

좌익수·1루수 고민… “캠프서 중점 확인”

통합 2연패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올해도 지난 시즌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이범호 감독은 22일 코치진, 양현종, 최형우, 광도규 등 일부 선수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캠프 프지인 미국으로 출국했다. 2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캠프에서 체력과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한다.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난 이 감독은 “스프링캠프를 가는 것은 매년 설렌다. 가장 큰 목표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투수진의 경우 투구수를 지키며 차근차근 준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프링캠프 명단에 선수 38명이 포함된 가운데 투수 이외리와 김태형의 이름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았던 이외리는 재활에 매진 중이고, ‘라운드 지명’ 김태형은 2025년 신인 중 유일하게 1군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이에 이 감독은 “이외리는 지금 투구를 해야 하는 단계다. 3~4월부터 퓨처스(2군)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며 투구수를 차근차근 늘릴 계획이다. 투수코치가 옆에서 투구를 봐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며 “김태형은 선발로 준비해야 하는 선수다. 선발 5명만 가지고 시즌을 치를 수 없다. 6~7번째 선발 투수도 만들어야 한다. 김태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해 볼 것이다. 한 축을 맡아주면 팀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령탑이 가장 고민하는 포지션은 좌익수와 1루수다. 지난해 좌익수로 뛰었던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시즌 후 결별했고, 1루 수비가 가능한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계약했으나 그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지션을 고심 중이다.

이 감독은 “외국인 타자가 내야수로 바뀌어서 캠프에서 수비 포지션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좌익수 수비를 어떤 선수에게 맡기는 것이 나올지 위즈덤이 1루 수비를 맡을 때 타격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KIA 선수단 전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원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미국을 왕복한다.

이 감독은 “비즈니스석을 많이 타봤는데, 코치 시절에는 일부러 타지 않으려고 했다”며 “대표이사님께서 정규 시즌 우승 선물로 비즈니스석을 타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선수들은 크게 반응이 없었다. 비즈니스석을 탈 때는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미국 어바인으로 출국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모르는데 내려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캠프에 가서 우승하면 또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웃었다.

지난해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룬 KIA는 올해 2연패를 향해 달린다. 수장은 팀 전력에 강한 믿음을 보였다.

이 감독은 “지난해 투수들이 포스트 시즌 등 큰 경기를 치렀다. 체력 소진 때문에 이번 시즌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팀의 경우 불

펜진 소모를 최소화했고, 선발 투수 중 양현종만 170이닝을 넘겼다.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선수들이 지난해 보여준 퍼포먼스를 올해도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 시즌도 기대가 된다”고 신뢰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전대 축구팀이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력·열정, 결실 맺었다’

전주전대, 1~2학년 대학축구 ‘준우승’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결승 진출

전주전대 축구팀이 제21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2일 전주전대에 따르면 결승에서 전종의 강호로 평가받는 선문대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 끝에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 5-4로 아쉽게 석패했다.

전주전대 감독과 선수들은 경기 후 “많은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경기였으며, 준우승이라는 성과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재활과 김보람 교수는 “우리 선수들이 힘든 경기를 연이어 치르며 체력을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다”며 “선수들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를 봤다. 그 자체로 이미 승리한 선수들”이라고 자부심을 표했다.

한편 전주전대 축구부의 이번 준우승은 2018년 이후 7년 만의 결승 진출이자 통산 두 번째 준우승이다. /정은성 기자



김길리(왼쪽부터), 서휘민, 김건희가 2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5 FISU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나란히 1,2,3위로 골인한 후 태극기를 들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한국은 김길리가 2분37초61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어 서휘민(2분37초985), 김건희(2분38초302)가 은, 동메달까지 휩쓸었다.

韓 남·녀 쇼트트랙, 세계 최강 면모 과시

세계대학경기대회 1500m 금·은·동 싹쓸이

한국 쇼트트랙이 1500m 종목에 걸린 모든 메달을 가져오며 세계 최강의 면모를 자랑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남녀 1500m 금, 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올 포디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쇼트트랙 여자부 1500m 결승에 출전한 김길리(성남시청)는 2분37초61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이번 대회 쇼트트랙 종목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길리와 함께 나선 서휘민(고려대)과 김건희(성남시청)는 레이스 중반까지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며 기회를 노렸고, 10바퀴를 남기고 일제히 함께 선두로 치고 나선 뒤 빈틈을 내주지 않고 그대로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길리에 이어 2분37초985로 결승선

을 통과한 서휘민은 2위, 김건희(2분38초302)는 3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나선 한국 선수 3명 모두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이어 진행된 남자부 1500m 결승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금·은·동을 싹쓸이하며 이번 대회 최강팀임을 과시했다.

결승에 나선 김태성(화성시청)과 이동현(단국대)은 레이스 중반까지 하위 그룹에서 레이스를 펼치다 7바퀴를 남기고 함께 선두로 치고 올랐다.

2위로 레이스를 펼치던 김태성은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에서 아웃코스로 이동현을 추월하며 2분27초77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이동현은 2분27초94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에서 레이스를 이끌던 배서찬(경희사이버대)이 2분28초087의 기록으로 이들에 이어 결승선

을 통과하며 남자부 1500m 메달도 한국 선수들이 모두 싹쓸이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길리와 서휘민, 김태성, 배서찬은 이어 진행된 혼성계주 준결승전에도 나서 2분42초991의 기록으로 여유롭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 결승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다. /뉴시스

전북현대, 태국 전후서

특수학교 찾아 기부품 전달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태국 후아힌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20일 특수교육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기부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스 포엣 감독과 주장 박진섭 선수를 비롯해 김영민, 이영재, 송범근, 이승우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전북 선수단은 자전거와 축구공, 책, 간식거리 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뉴시스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골프트로피·상패제작전문
국제로타리용품 대리점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팜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우산 /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월

명품종합상패

mpcatalog.cafe24.com

전주시 덕진구 떡전로7 (금암동794-8)
사무실 : 063-232-2323
F A X : 063-286-4665
E-mail : mp2322323@daum.net